

2026년 8월 22일: 양극화된 시장과 다가오는 슈퍼위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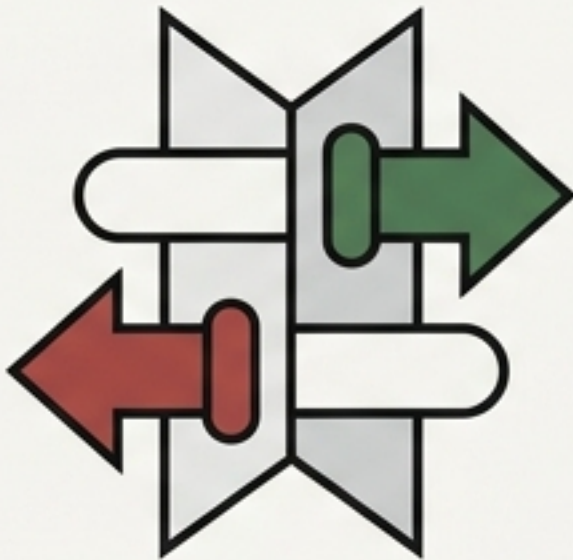
글로벌 매크로 및 국내 시황 브리핑

생성일시: 2026-08-22 / 리포트 유형: 글로벌 시황 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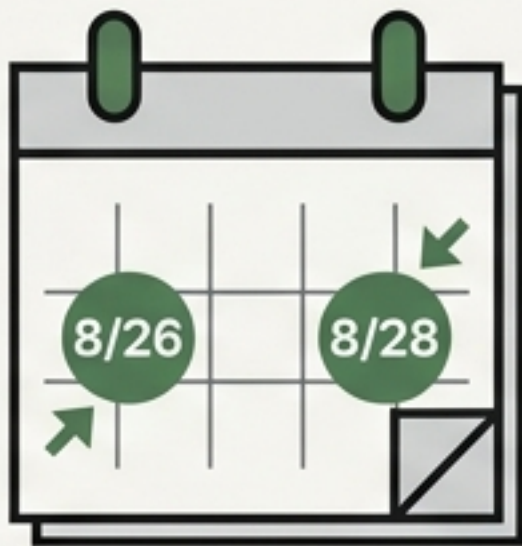
극단적 디커플링

코스피 6,900선 안착(+0.88%)
반면, 코스닥은 사이드카 수준의
급락(-4.63%) 발생.



이례적 매크로 기류

미 국채 10년물 금리 상승(+5bp)과
달러 인덱스 하락(-0.32)이
공존하는 기형적 환경.



핵심 촉매제 대기

다음 주 NVDA 실적 발표(8/26)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8/28)를
앞둔 시장의 극심한 눈치보기.

글로벌 증시는 기술주 랠리와 자원주 강세로 상승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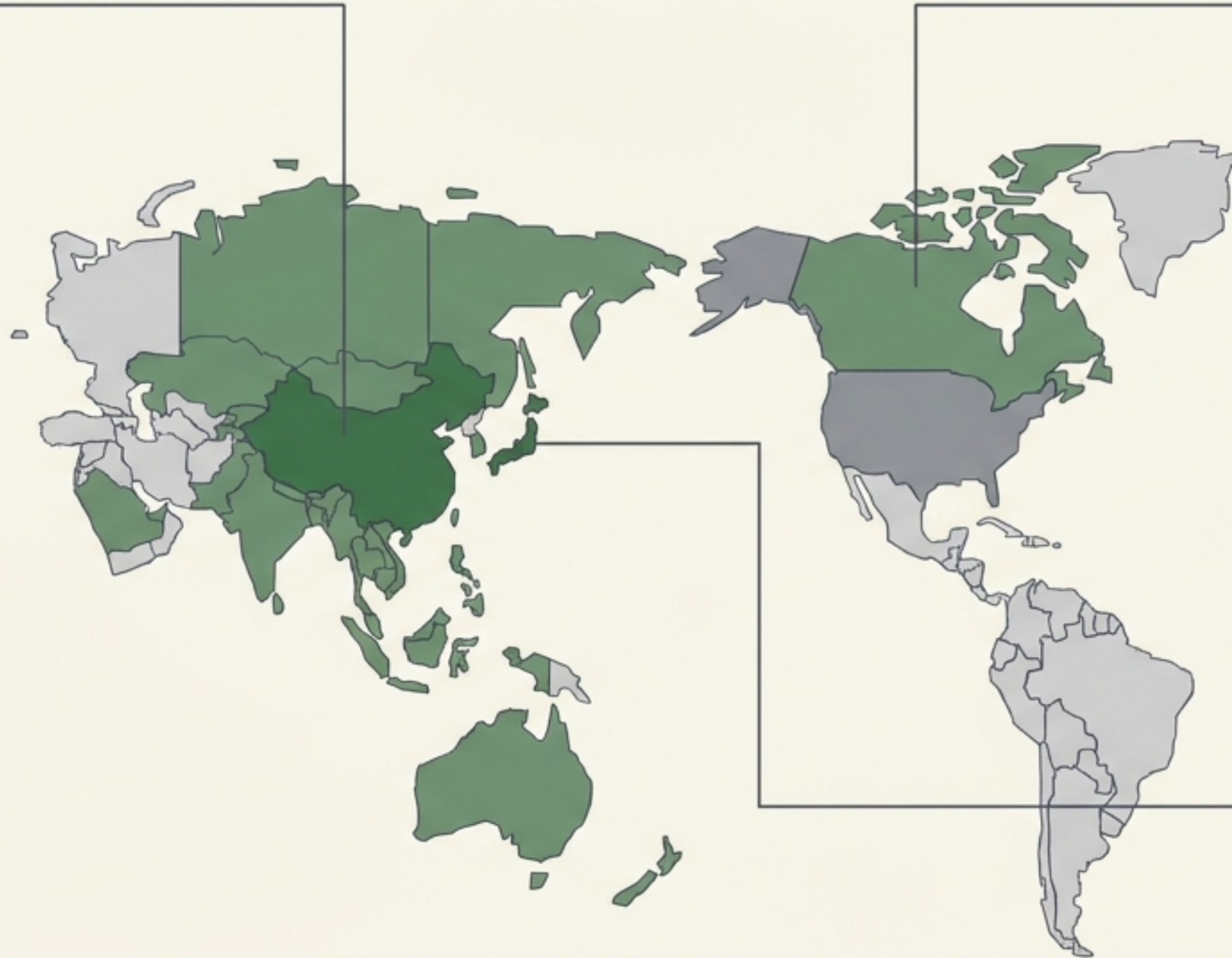
[Asia] 강세장 주도

항셍 22,944.00 (+1.59%)

선전성분 (+0.62%),
상하이종합 (+0.45%)

호주 ASX 200 (+0.52%)

자원주 강세 돋보임



[Europe] 견조한 흐름

DAX (+0.80%)

FTSE 100 (+0.79%),
STOXX 50 (+0.62%)

방산주 강세 및
우크라 평화협상 기대

[Japan] 엇갈린 신호

닛케이 225 (+0.46%)

엔화 약세 기반 수출주 강세
vs 월마트 약재 소매주 하락

시장 인사이트 (UBS 전망): 기술주 중심의 글로벌 랠리가 전 섹터로 확산될 가능성 존재. 단, 미국의 장기 국채 불안이 주요 리스크 변수.

코스피와 코스닥, 하루 5.5%의 극단적 디커플링이 발생했습니다

KOSPI

6,912.95 (+0.88%)



수급 주체

외국인 (156.7만주 순매수) / 기관 (130.7만주 순매수)

상승 동인 (Primary Drivers)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투톱 강세.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기대감 집중.

KOSDAQ

801.94 (-4.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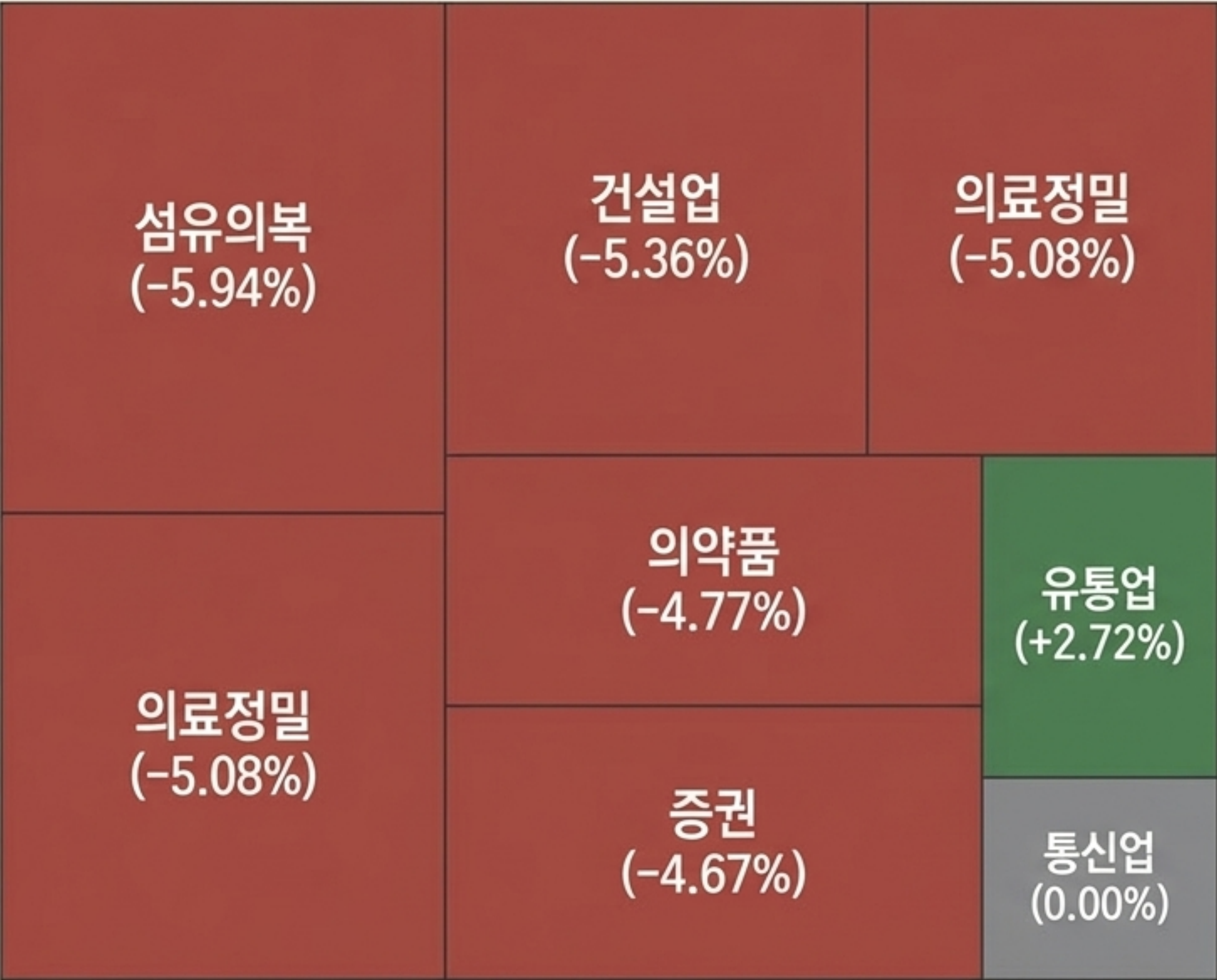
수급 주체

개인 (267.1만주 패닉 셀링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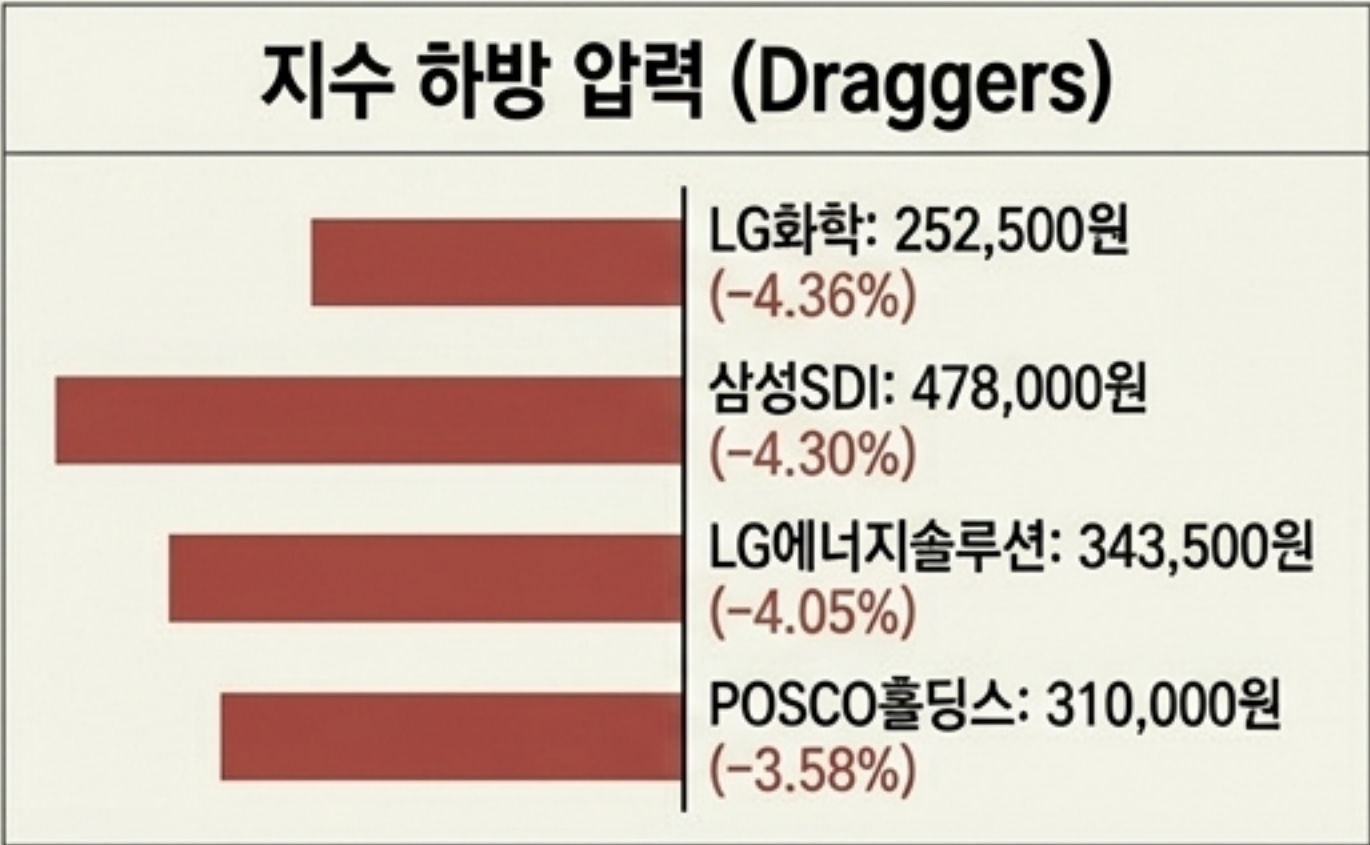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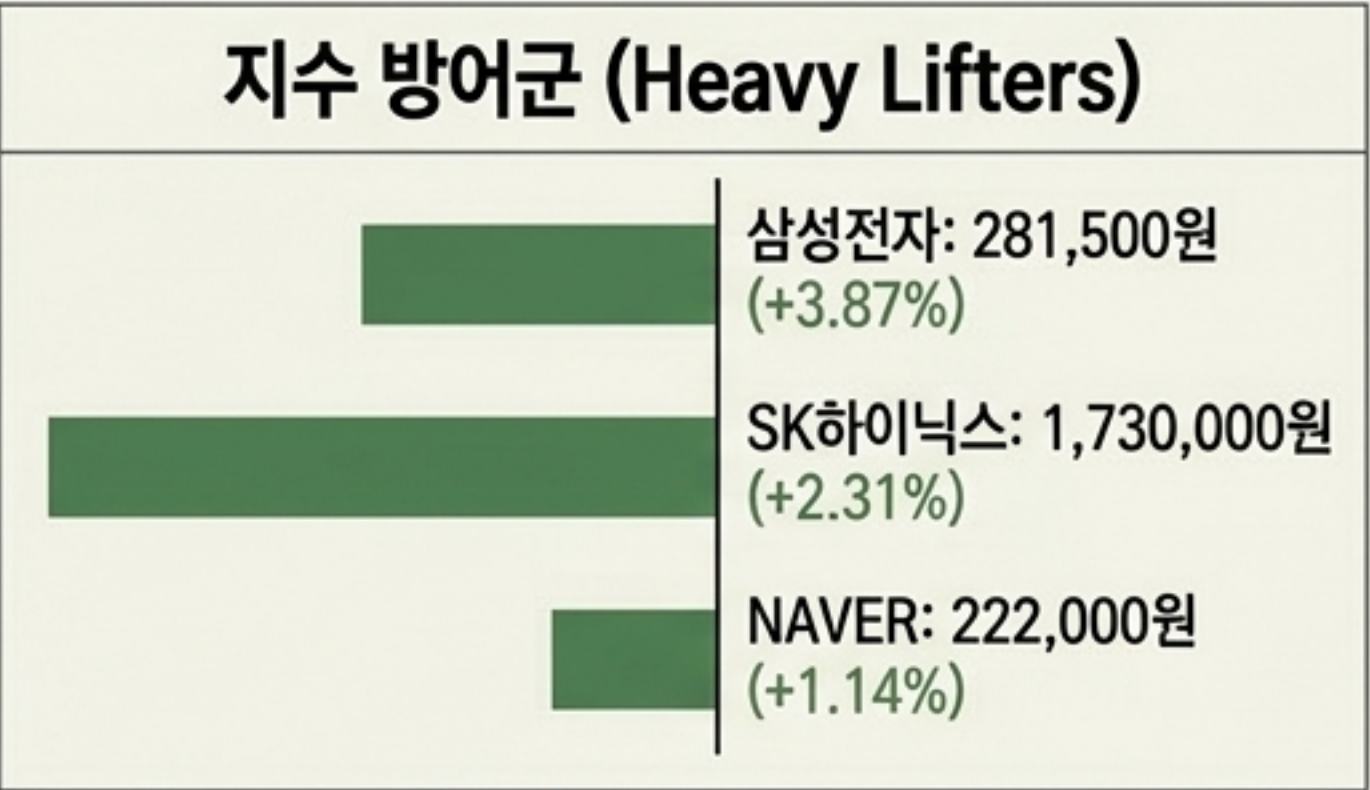
하락 동인 (Primary Drivers)

미국 증시 약세 여파. 고평가 성장주에 대한
리스크 회피(Risk-off) 심리 극대화.

반도체 투톱이 지수를 견인하는 가운데 섹터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대다수 섹터가 하락하며 지수 상승 대비 체감 경기는 부진함.



미국 증시는 표면적 보합세 아래 기술주 저가 매수가 활발합니다

수면 위 / 보합세

S&P 500: 7,641.16 (+0.00%)

DOW JONES: 52,759.21 (+0.00%)

상승 기류: 기술주 저가 매수

나스닥 0.5% ~ 0.8% 상승 마감.
UDynamics IPO, 바이오어피니티
주식병합 등 활발한 반발 매수세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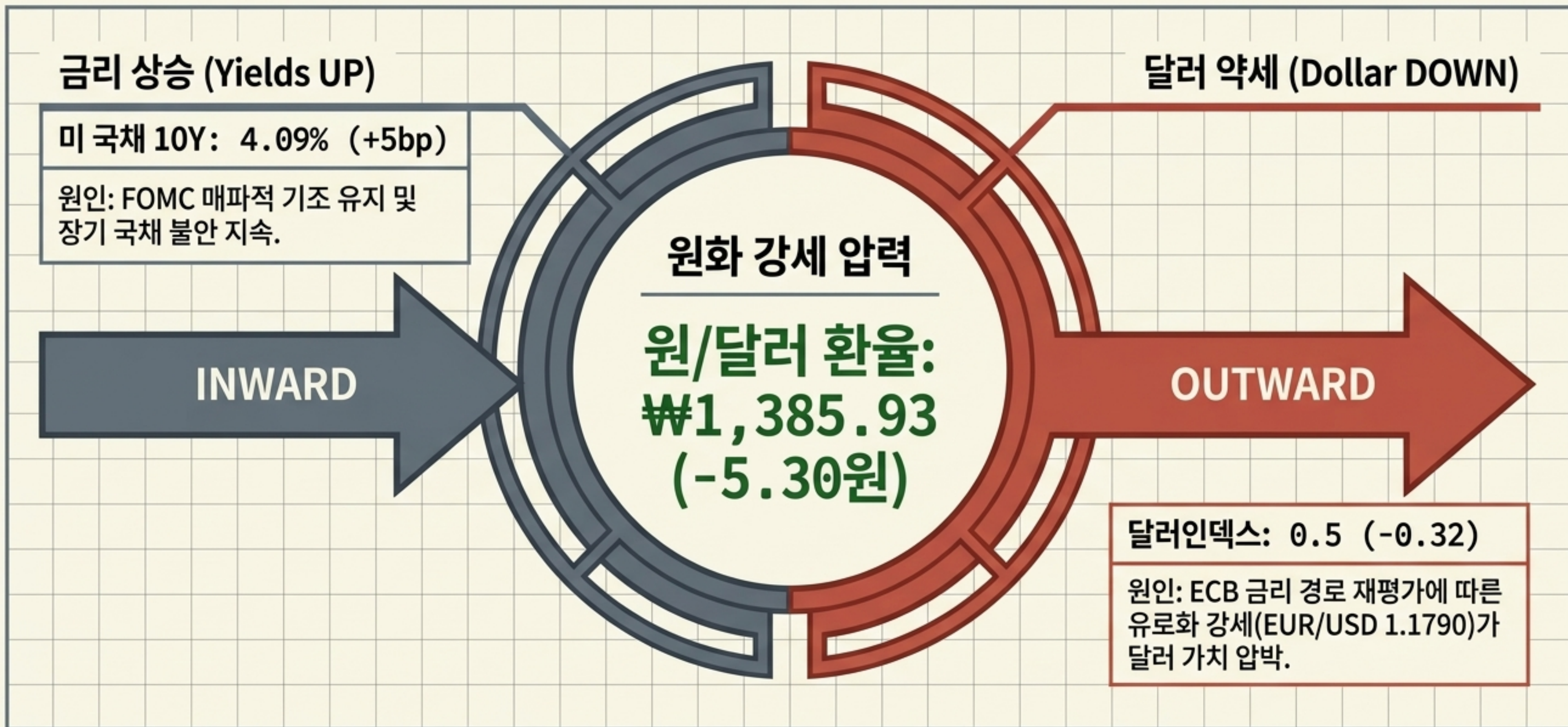


하방 압력: 매크로 불안

국채 매입 '바이백' 효과
1일 천하로 소멸.
연준(Fed)의 엇갈린 금리 신호 및
이란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금리 상승과 달러 약세라는 이례적인 매크로 교차 기류가 발생 중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과 안전자산 선호가 대체자산의 동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실물 자산

원유 (Inflation Prox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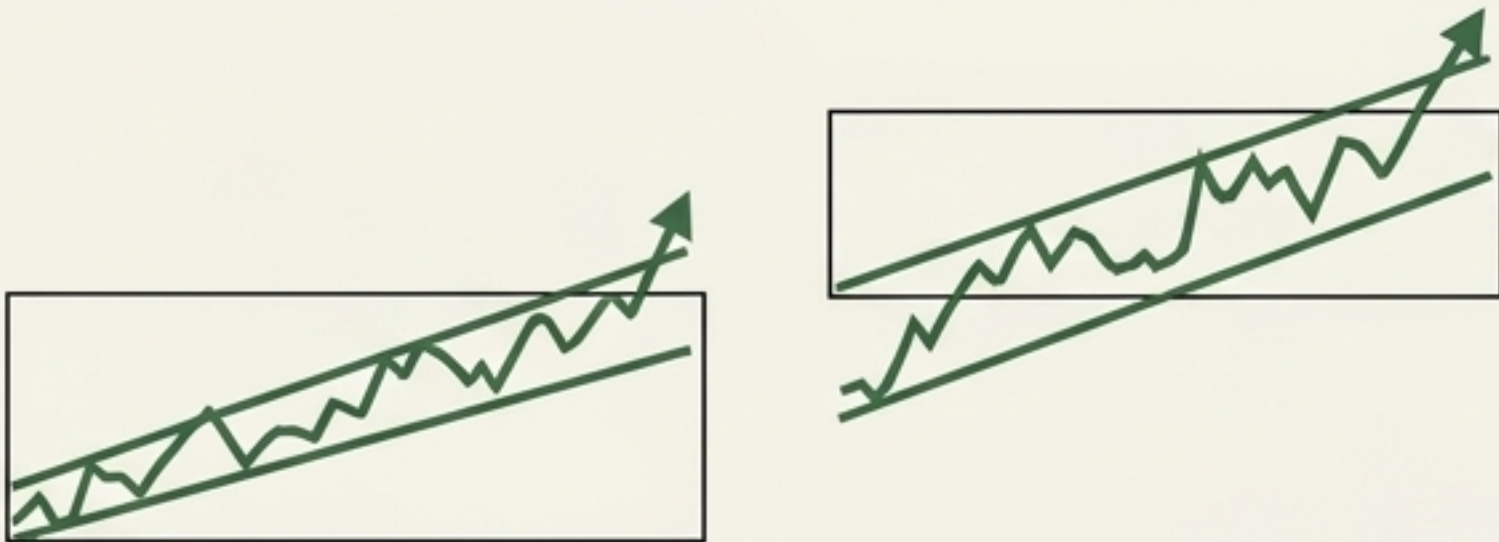
WTI 원유: \$86.64 (+\$2.62)

OPEC 감산 연장 기대로 상승세 지속.

Local Impact: 국제유가 상승에도 한국 정부는 민생/물가 부담을 고려해 석유 최고가격 4주 추가 동결 조치 (9차 동결).

헤지 및 유동성 자산

금 & 비트코인 (Hedge & Liquidity)



금 (XAU): \$1,811 (+\$18)

비트코인: \$67,350 (+\$1,240)

증시 불안에 따른 전통적 안전자산(금) 선호와 현물 ETF 순유입 기반의 디지털 유동성 헤지(BTC) 수요가 동시 폭발 중.

차주 글로벌 기술주와 국내 통화정책의 핵심 분수령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Global Tech Test

8/26 (수)

 NVDA (엔비디아) 실적 발표

현재 나스닥에 유입되는 기술주 저가 매수세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대적 기준점. 글로벌 주식 랠리 확산 여부를 결정지을 메가 이벤트.

Domestic
Liquidity Pivot

8/28 (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10:00)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강세) 및 코스피 주주환원 랠리 속도 조절의 트리거. 국내 증시 수급의 향방을 가를 핵심 매크로 이벤트.

현재의 매크로 교차 기류에 대응하는 2x2 포지셔닝 전략

	Domestic (국내)	Global (해외)
Offense (공격적 대응)	국내 대형주 집중 Target: 코스피 대형 반도체(삼성/닉스) 및 주주환원 수혜주 Reason: 외국인/기관 수급 집중 및 강력한 정책 모멘텀 유효.	미국 기술주 딥바잉 Target: 미국 나스닥 대형 기술주 Reason: 펀더멘털 기반의 저가 매수(Dip-buying) 기회. (NVDA 실적 모니터링 필수).
	Defense/Avoid (방어 및 회피)	단기 리스크 회피 Target: 코스닥 고평가 성장주 및 부진한 내수 섹터(건설/의류) Reason: 투심 위축 및 개인 패닉 셀링 여파 지속. 금리 불확실성 시기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 시까지 철저한 관망.